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2022년 상반기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목차

- I.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
- II.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
- III. 하반기 전망

요약

- 2022년 상반기 중국 GDP는 2.5% 증가한 56조 2,642억 위안(약 1경 1천조 원)을 기록하였고, 그중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2020년 1분기(Δ 6.9%)이후 가장 낮음
- 상반기 중국 수출액은 14.2%, 수입액은 5.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1,338억 달러 증가한 3,854억 달러(약 506조 원) 흑자 기록
- 한국은 중국 수출대상국(지역) 순위에서 7위, 중국 수입대상국(지역)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고 상반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8.3%, 3.3% 증가
-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3~5월 소비수요가 약화되었으나 6월부터 회복 조짐을 보임
- 중국 및 해외 각 기관은 금년 중국 GDP 성장률이 3.9% ~ 4.9% 사이일 것으로 예측
- 하반기 중국 수출입 증가세는 둔화할 수 있으나 경기부양 정책 효력 강화, RCEP 회원국 간 무역 확대, PPI(생산자물가지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 대외무역 규모는 여전히 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

1.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

① 경제성장률

■ 2022년 상반기 중국 GDP는 2.5% 증가한 56조 2,642억 위안(약 1경 1천조 원)을 기록

-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상반기 주요 대도시 코로나19 방역 통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최초 발생 직후였던 2020년 1분기(△6.9%)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임

*분기별 GDP 성장률 ('21.Q3) 4.9% → ('21.Q4) 4.0% → ('22.Q1) 4.8% → ('22.Q2) 0.4%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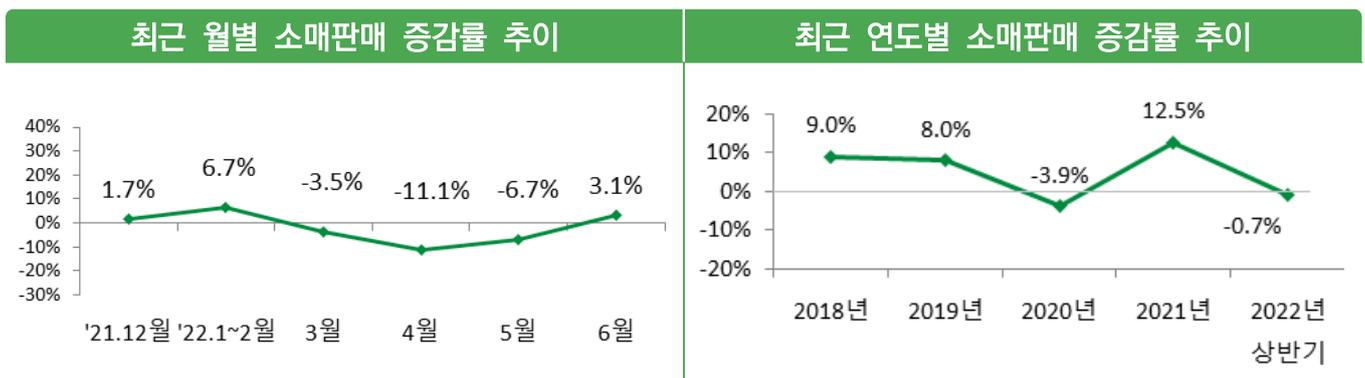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② 소비와 물가

■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21조 432억 위안(약 4,118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

-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소비 수요가 점차 약화되었으며, 3~5월 소매판매 증감률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나 6월에 3.1%로 반등
- 코로나로 인한 대면산업분야 소비 침체로 요식업 시장은 7.7% 하락했고 패션 및 의류, 화장품류, 금은보석류는 각각 6.5%, 2.5%, 1.3% 하락. 반면 비대면 온라인 상품 소매판매는 5.6% 증가하였고 의약품류와 석유류는 각각 9.7%, 14.2% 증가

최근 중국의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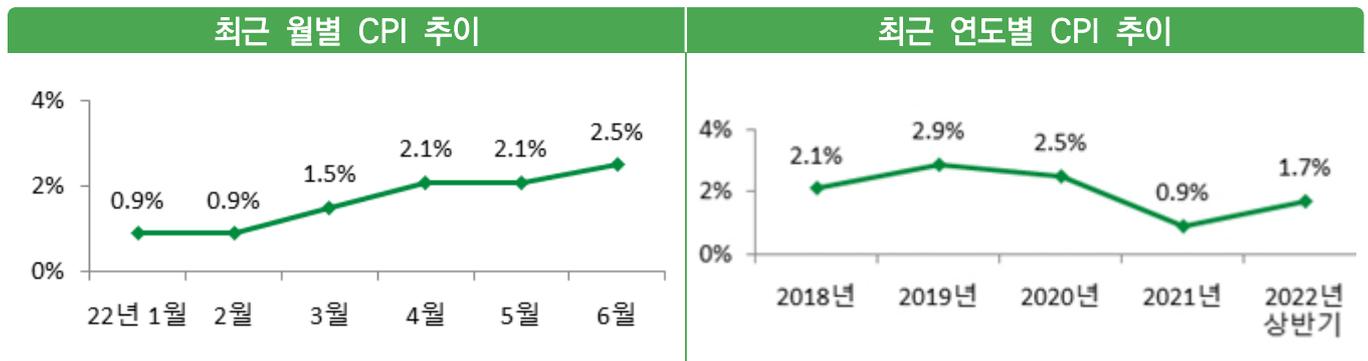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변동성 상승세를 보였고 전년 대비 1.7% 상승

- 금년 1월 0.9%에 달했던 CPI는 지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2.5%를 기록함
- 그중 상반기 중국의 소비재가격은 2.1%, 서비스가격은 1.1% 상승함
- CPI 상승의 주요 요인인 교통·통신 가격은 6.3% 상승하였으며,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원유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특히 교통수단용 연료 가격이 26.2% 대폭 상승함

최근 중국의 CPI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③ 투자

■ 2022년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6.1% 증가했으며 그중 제조업, 광업 분야의 투자는 각각 10.4%, 9.8% 증가하고 농림·축산·어업 분야는 8.0% 증가

-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제조 관련 투자는 8.9% 증가했으며, 투자가 가장 늘어난 분야는 전문설비 제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36.7% 증가. 컴퓨터 및 통신 장비, 금속제품, 의약품 제조 관련 투자는 각각 19.9%, 14.7%, 5.4% 증가
- 투자 주체로 분류하면, 국영기업의 투자가 9.2% 증가했고 민간기업 투자는 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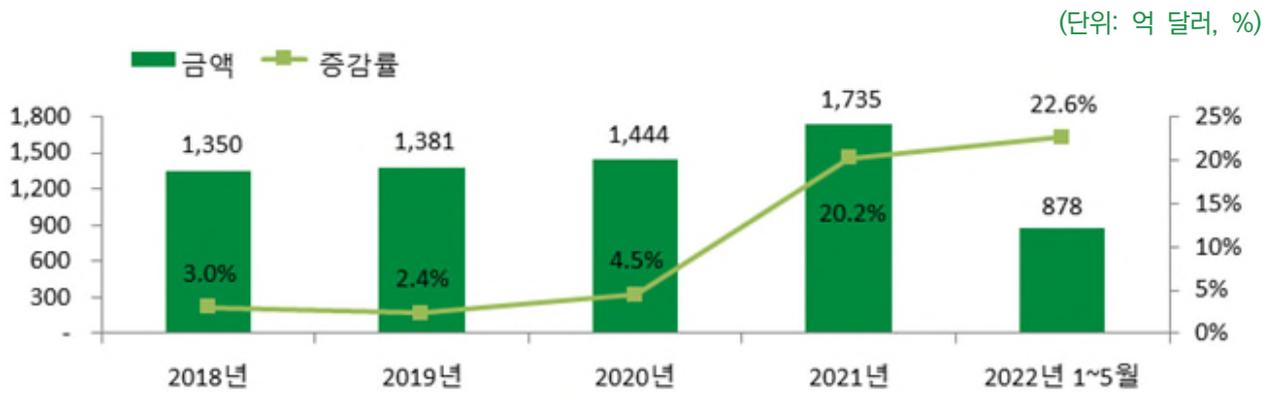
최근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022년 1~5월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한 878억 달러(약 116조 원)를 기록했으며, 특히 하이테크 산업 투자가 42.7% 증가하였고 하반기 투자액도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대중국 투자국가 및 지역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있으며, 금년 1~5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52.8%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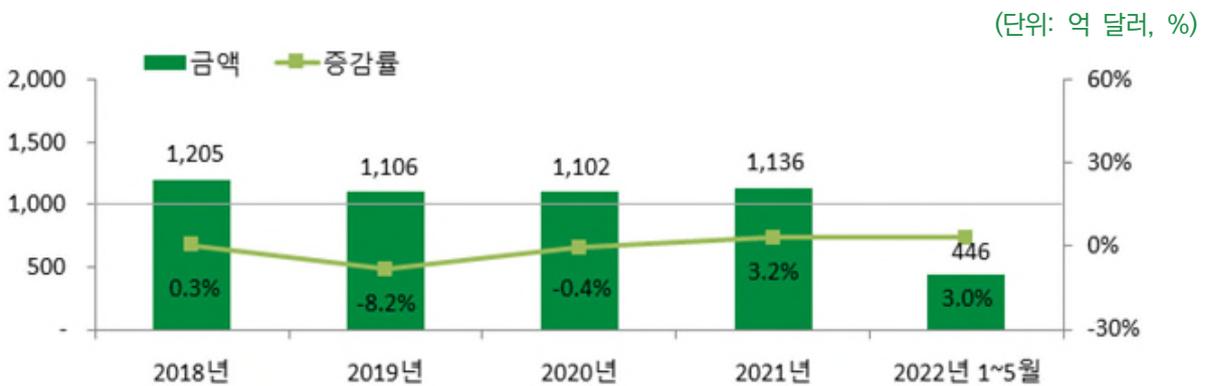
최근 연도별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022년 1~5월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ODI)는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446억 달러(약 59조 원)를 기록함
- 그중 중국기업의 對일대일로 협력 국가·지역 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한 82억 달러로 전체의 18.4% 비중을 차지함

최근 연도별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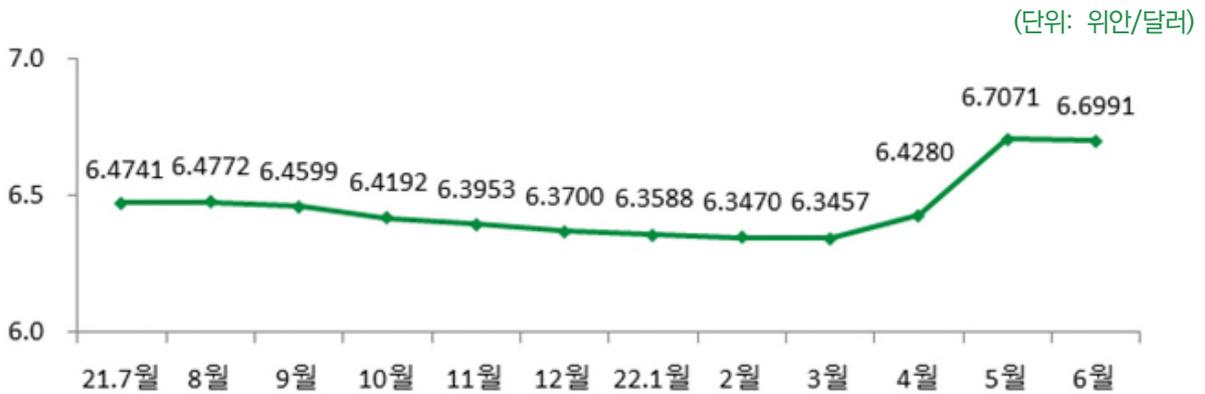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상무부

4 환율 및 외환보유액

- 2022년 상반기 평균 위안화 환율은 6.4810위안/달러였고, 작년 7월 평균 6.4741위안/달러에 달했던 위안화 환율은 금년 3월까지 위안화 강세를 이어오다가 5월부터 약세로 전환
- 2020년 12월 이후부터 달러당 6.55위안 이하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6.7위안 수준으로 높아져 위안화 약세 지속

2022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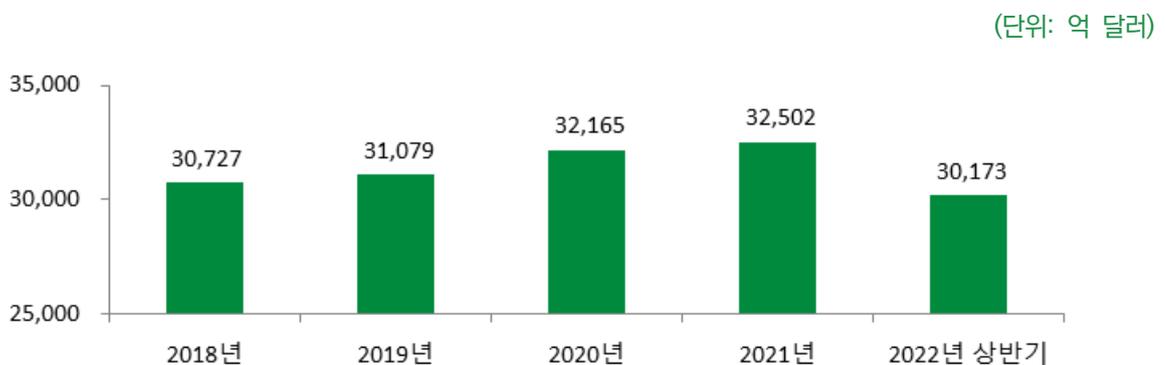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인민은행

- 2022년 6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 173억 달러(약 3,975조 원)로 2021년 기말 대비 2,329억 달러 감소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3조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 1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미 달러화의 강세 등 환율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

*월별 외환보유액(억 달러): ('22.1월) 32,216 → (2월) 32,138 → (3월) 31,880 → (4월) 31,197 → (5월) 31,278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주 : 기말 기준

자료 : 중국 인민은행

2.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

① 전체 수출입

-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14.2% 증가한 1조 7,323억 달러(약 2,274조 원), 수입은 5.7% 증가한 1조 3,468억 달러(약 1,768조 원)를 기록
-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1,338억 달러 증가한 3,854억 달러(약 506조 원)를 기록

최근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상반기	2022.6월
수출	금액	24,874	24,984	25,906	33,640	17,322.8	3,312.6
	증감률	9.9	0.5	3.6	29.9	14.2	17.9
수입	금액	21,356	20,769	20,556	26,875	13,468.4	2,333.2
	증감률	15.8	△2.8	△1.1	30.1	5.7	1.0
무역수지		3,518	4,215	5,350	6,764	3,854.4	979.4

출처 : 중국 해관총서

② 국가(지역)별 수출입

- (수출) 상반기 미국(15.8%), EU(19.1%), ASEAN(16.6%), 중남미(20.1%), 아프리카(14.7%) 등 대부분 주요 교역 지역·국가로의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증가 폭은 낮음
 -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18.3%), 일본(4.4%) 및 동남아의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3.6%)에 대한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對홍콩(△8.6%)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한국은 중국 수출대상국(지역) 순위에서 7위를 차지
- (수입) 상반기 ASEAN(5.3%), 중남미(9.8%), 미국(3.6%), 아프리카(19.1%)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對EU(△7.6%), 對호주(△12.3%)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동북아경제권 내 대만(7.3%), 한국(3.3%)으로부터의 수입액은 한 자릿수 증가율 보였으며 일본(△7.3%)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한국은 중국 수입대상국(지역) 순위에서 5위를 차지

2022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지역)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별	금액	증감률	국가별	금액	증감률
1	미국	2,927	15.8	*ASEAN	1,953	5.3
2	*EU	2,772	19.1	*EU	1,434	△7.6
3	*ASEAN	2,632	16.6	대만	1,225	7.3
4	홍콩	1,431	△8.6	*중남미	1,162	9.8
5	*중남미	1,205	20.1	한국	1,029	3.3
6	일본	835	4.4	일본	936	△7.3
7	한국	813	18.3	미국	913	3.6
8	*아프리카	768	14.7	호주	704	△12.3
9	베트남	712	3.6	*아프리카	606	19.1
10	독일	577	9.5	독일	557	△7.2

*주 : EU 및 ASEAN 등의 실적에는 상기 개별국가들의 실적이 포함

자료 : 중국 해관총서

3 품목별 수출입

■ (수출)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비중 5.0%), 의류 및 부자재(비중 3.3%), 반도체 및 집적회로(비중 3.2%)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6%, 12.0%, 17.2% 증가

- 반도체 및 집적회로, 휴대폰, 강재, 가전제품 품목의 수출 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전제품(비중 1.8%)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 해외 국가들의 방역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가전수요가 줄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유럽 등 서구지역 소비둔화가 주요 원인

■ (수입) 상반기 반도체 및 집적회로(비중 10.9%), 식량(비중 2.2%), 대두(비중 1.6%)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4%, 17.8%, 18.4% 증가

- 특히, 글로벌 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반기 원유(비중 9.4%), 천연가스(비중 1.6%)의 수입액이 각각 54.0%, 51.4% 큰 폭으로 증가. 수입 수량은 줄었으나 수입액 증가세가 가파른 데에는 위안화 약세(외환시장 불안정성)가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철광석 및 정광(비중 3.6%), 컴퓨터 및 주변기기(비중 1.6%), 가공 전 초기형태의 플라스틱(비중 1.5%)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0%, 1.1%, 1.3% 감소
- 10대 수입 품목 중 구리 광석 및 정광, 미단조 동 및 동재를 제외한 7개 품목의 수입 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

2022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 목	수량 기준		금액 기준		
		수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1,197	4.6	5.0
2	의류 및 부자재	-	-	802	12.0	3.3
3	반도체 및 집적회로	1,410억 개	△6.8	776	17.2	3.2
4	방직실 및 직물	-	-	763	11.3	3.2
5	휴대폰	40,572만 대	△10.9	675	4.1	2.8
6	플라스틱제품	-	-	524	16.0	2.2
7	강재	3,346만 톤	△10.5	481	30.6	2.0
8	가전제품	171,198만 대	△7.7	441	△7.2	1.8
9	자동차부품	-	-	388	7.5	1.6
10	가구 및 부품	-	-	352	1.2	1.5

*주 : 순위는 금액 기준임. 자료 : 중국 해관총서

2022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 목	수량 기준		금액 기준		
		수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및 집적회로	2,797억 개	△10.4	2,102	6.4	10.9
2	원유	25,252만 톤	△3.1	1,810	54.0	9.4
3	철광석 및 정광	53,575만 톤	△4.4	684	△30.0	3.6
4	식량(곡류)	7,978만 톤	△5.4	424	17.8	2.2
5	천연가스	5,357만 톤	△10.0	317	51.4	1.6
6	구리 광석 및 정광	1,248만 톤	8.6	314	13.6	1.6
7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303	△1.1	1.6
8	대두	4,628만 톤	△5.4	301	18.4	1.6
9	미단조 동 및 동재	2,941,707톤	5.3	298	17.1	1.6
10	초기형태의 플라스틱	1,506만 톤	△13.0	294	△1.3	1.5

*주 : 순위는 금액 기준임. 자료 : 중국 해관총서

④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실적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해외 및 중국 각 기관은 2022년 하반기 중국 수출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 산발적 코로나19 변이 확산,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해외수요 억제, 불안정한 국제정세 영향 등이 있음

- 다만 경기부양 정책 효력 강화, RCEP 회원국 간 무역 확대, PPI(생산자물가지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 대외무역 규모는 여전히 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

2022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기관별 평가 및 하반기 전망

구분	기관	주요 내용
중국	 해관총서 (海关总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중국 대외무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8분기 연속 수출입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며 중국경제 안정에 기여 - 특히 상반기 자동차 품목 수출액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국 브랜드의 전기 자동차 수출이 확대되어 유럽 등 선진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함 - 민영기업의 상반기 전자제품이 가파른 수출증가세(15.3%)를 보임 -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안정적 수출입성장 전망
	 중신증권 (中信证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높은 수출 실적과 수입 둔화로 무역수지는 1,000달러에 근접한 9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대외무역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대조적임 - 하반기 RCEP가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두드러질 것이며, 하반기 불확실성은 높으나 중국 대외무역 규모 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
	 자오상 은행 (招商银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경기침체 추세는 중국 수출 및 제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코로나19 재확산,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입 둔화 전망 - 하반기 PPI는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으나 CPI는 9월 연중 최고 수준(3%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해외	 블룸버그 (Bloombe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6월 무역수지는 약 979억 달러로 지난 30년 이래 월별 무역흑자 최고치를 기록 - 6월 수출증가율은 17.9%로 시장 예측치(12.5%)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은 1.0%로 시장 예측치(4.0%)를 하회함 - 상반기 희토류 수출액이 84.5% 증가, 철광석은 수입 감소세 지속 - 양호한 6월 수출실적은 상하이항 수송력 회복을 반영하나 하반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수요는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며, 수출둔화 전망
	 로이터 (Reu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6월 수출증가율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나 수입증가율은 내수 약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둔화 - 6월 수입량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특히 원자재 수입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건설 부문 경기침체 영향 반영 - 내수부진은 향후 중국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2분기 경제는 30년만에 두 번째 최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중국 무역의 20%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인 상하이가 상반기 중 2개월간 폐쇄되는 바람에 애플, 에스티로더, 테슬라 등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경영 방침에 혼란을 겪었음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락다운 효과는 한동안 지속되어 중국 내 일부 해외 브랜드 기업들이 상반기 최대 35% 이상 손실 효과를 보았다고 하나, 럭셔리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보복소비가 향후 수입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GDP성장률 약세에 따라 경제 활성화의 척도로 활용되는 동재 가격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활성화 및 수출 호조로 이어질 수 있음
	 CN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수출은 6월에 예상보다 더 많이 급증했지만 수입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상승폭을 보였음 - 중국의 2분기(4월-6월) GDP가 예측치인 1%에 비해 0.4%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중국의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자료 :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22.7.14 현재)

3. 하반기 전망

■ 중국 및 해외 각 기관은 금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3.9%~4.9% 범위 내외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상반기의 복합적인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초에 예측했던 4.8%~5.5% 범위에서 하향 조정함

-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4%, 4.3%로 전망
-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 GDP 예측치를 4.3%로 하향 조정하였고, 단기적으로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경제성장 동력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

주요 기관별 2022년 중국 GDP 전망

구분	기관	전망치	비고
중국	 중국은행 (中国银行)	4.0%~4.7%	- 물가상승률은 합리적 범위 내이며, 고용상황도 안정되고 특히 서비스업 경기 회복국면이 이어져 하반기 경제회복 여지가 있음 - 하반기 내수시장 활성화가 거시경제 안정화의 관건임 - 6월 PMI는 50.2로 반등하여 제조업계는 경기확장 구간에 진입하였으며, 물류 운송 조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자오상 은행 (招商银行)	4.2%	- 불안정한 국제정세, 경제성장 동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금년 중국경제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경제 전망 5.2%(22.2월)→ 4.2%(22.7월)로 하향 조정
	 즈신투자연구원 (植信投资研究院)	4.6%~4.9%	- 연초 정부가 제시한 2022년 GDP 목표치인 5.5% 달성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경기 침체는 가계소비 위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 소비자는 장기 투자, 주택 소비 등의 지출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음
해외	 IMF	4.4%	- 중국경제 전망 4.8%(22.1월)→ 4.4%(22.4월)로 하향 조정 - 세계경제 전망 4.4%(22.1월) → 3.6%(22.4월)로 하향 조정
	 세계은행	4.3%	- 중국경제 전망 5.1%(22.1월) → 4.3%(22.6월)로 하향 조정 - 세계경제 전망 4.1%(22.1월) → 2.9%(22.6월)로 하향 조정 - 단기적으로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경제성장 동력 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향후 중국 내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이동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GDP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음
	 OECD	4.4%	- 중국경제 전망 5.1%(22.1월) → 4.4%(22.6월)로 하향 조정 - 세계경제 전망 4.5%(22.1월) → 3.0%(22.6월)로 하향 조정
	 노무라 증권	3.9%	- 세계 금융시장이 중국 경기둔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중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부분적 폐쇄 도시 증가, 물류 차질 등의 영향은 주요 거시경제지표 악화 및 경제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 :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22.7.14 현재)

- 중국은행은 비관적, 낙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0% ~ 4.7% 사이로 예측했으며, 하반기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 및 경기 안정화의 주요 관건이라고 언급
- 3분기 GDP성장률 예측치는 4.6% ~ 6.0% 사이로 전망
- 즈신투자연구원(植信投資研究院)은 경기침체로 인해 연초 정부가 제시한 2022년 GDP 목표치인 5.5% 달성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활성화정책이 필요하고, 하반기에도 가계소비 위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
-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성장 동력은 약하나 하반기 중국 인프라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내수시장 실질 소비 약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수입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하반기 CPI 상승세가 예상되나 3%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금년 7월, 자오상 은행(招商銀行)은 2022년 주요 경제지표 예측치를 발표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
- 소매판매 증감률 예측치는 2.6%로 전년보다 낮게 전망한 반면,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예측치는 5.5%로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기대
- CPI 예측치는 2.2%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며, PPI 예측치는 5.5%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수출증감률 및 수입증감률 예측치는 각각 6.3%, 2.8%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던 전년도와 달리 한 자릿수 증가세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

작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금년 예측치

(단위 : %)	경제성장률	소매판매 증감률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CPI	PPI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2021년	8.1	12.5	4.9	0.9	8.1	29.9	30.1
2022년 (예측치)	4.2	2.6	5.5	2.2	5.5	6.3	2.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자오상은행(招商銀行)

<참고>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1~3월)	2022년 6월	2022년 상반기 (1~6월)
경제성장률 (%)	2.2	8.1	4.8	-	2.5
소매판매 증감률 (%)	△3.9	12.5	3.3	3.1	△0.7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	2.9	4.9	9.3	-	6.1
산업생산 증감률 (%)	2.8	9.6	8.5	3.9	3.4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 , 기말)	51.9	50.3	49.5	50.2	50.2
소비자 물가지수 CPI (%)	2.5	0.9	1.1	2.5	1.7
생산자 물가지수 PPI (%)	△1.8	8.1	8.7	6.1	7.8
실업률 (% , 기말)	5.2	5.1	5.5	5.5	5.7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	1,444 (4.5)	1,735 (20.2)	745 (26.1)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1,102 (△0.4)	1,136 (3.2)	269 (8.5)	-	-
외환보유액 (억 달러, 기말)	32,165	32,502	31,880	30,173	30,173
평균 환율 (위안/달러)	6.8974	6.4512	6.3505	6.6991	6.4810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인민은행